

# 01



아름다운 자연과의 만남,  
자연을 사랑하는 사람과의 만남  
생태관광 활성화 정책 방향

- I. 생태관광의 이해
- II. 그간의 생태관광 정책
- III. 생태관광의 성공·저해요인
- IV.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5대 전략 15개 과제
- V. 생태관광 성공모델 육성 계획
- VI. 생태관광의 기대효과

# I

## 생태관광의 이해



예술작품 같은 벽화, 구실잣밤나무 꽃향기가 은은한 뒷산, 도시의 상념을 파도와 바람에 흘러 보낼 수 있는 호젓한 해안가, 풀 한포기마다 사람들의 애정 어린 눈길이 닿은 아름다운 마을...

이 곳은 상상 속의 그림이 아니다. 흑산도에서 배를 타고 10여 분을 가면 눈앞에 펼쳐지는 영산도 명품마을의 실제 모습이다. 지난 2010년 국립공원 구역 조정 당시 영산도 주민들은 마을이 다도해해상 국립공원에 계속 남아있기를 희망했다. 4년이 지난 지금 영산도는 생태관광(Ecotourism)의 대표 사례로 주목 받고 있다.

### ● ● 생태관광의 등장

1983년 멕시코 유카탄 반도 북부 셀레스툰강 하구 일대의 홍학서식지는 해양레저지구로 개발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당시 멕시코 도시개발·생태부 국장이었던 엑토르 세바요스-라스쿠라인\*은 환경영향을 최소화하면서도 지역 수익을 보장하는 다른 형태의 관광이 가능하다는, 셀레스툰의 생태계를 훼손하는 개발 계획을 변경하도록 정부와 주민을 설득하면서 '생태관광'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했다. 관광단지 개발 대신 생태관광을 선택한 결과 현재 셀레스툰강 하구는 우아한 자태의 홍학 무리는 물론 고래, 바다거북 등을 수시로 볼 수 있는 세계적인 생태 관광지가 되었다.

\* 엑토르 세바요스-라스쿠라인(Héctor Ceballos-Lascurain)은 멕시코의 건축가이자 환경운동가로서 1983년 멕시코 도시 개발·생태부의 국장으로 재직할 당시 생태관광(Ecotourism)이란 용어를 처음 사용했다. 현재는 세계관광기구(UNWTO)와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의 생태관광 특별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다.

## ● ● 생태관광의 요소

생태관광은 대규모 단체관광이 자연환경을 훼손하고 지역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극복하고자 나타난 대안관광이다. 단순히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즐기는 ‘자연관광’이나 지역사회가 관광으로부터 정당한 이익을 얻도록 하는 ‘공정여행’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생태관광’은 지역의 자연과 문화의 보전에 기여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생태교육과 해설을 통해 참여자가 환경의 소중함을 느끼게 되는 여행이다.

### 생태관광이란 무엇인가?



#### ● 보전

생태관광은 생물문화 다양성 제고와 보전을 위한 효과적인 경제적 유인을 제공해 자연 / 문화유산의 보호를 돕는다.



#### ● 공동체

생태관광은 지역역량과 고용기회를 확대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빈곤에 대처할 수 있도록 지역 공동체를 강화하는 유용한 수단이다.



#### ● 해설

생태관광은 해설을 통해 개인의 경험과 환경인식을 풍요롭게 하고, 자연, 지역사회 그리고 문화의 소중함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

출처: [www.ecotourism.org/what-is-ecotourism](http://www.ecotourism.org/what-is-ecotourism)

## ● ● 세계 속의 생태관광

생태관광은 2004년에 세계관광시장의 7%를 차지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는 연간 10~15%의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호주와 일본의 경우 국가 전략을 수립하고 법률을 제정해 생태관광을 육성해 왔다. 그 결과 호주에서는 생태관광 인증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민간 주도의 생태관광 운영 체계가 확립되었고, 일본의 경우는 자연 자원의 보호를 위해 정부에 환경규제를 요구할 정도로 지역사회가 자연보전과 생태관광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 III

## 그간의 생태관광 정책



우리나라는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및 생물권보전지역, 람사르협약에 등록된 습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국립공원 등 우수한 생태자원을 다수 보유하고 있다. 또한 주5일 근무제가 정착되면서 주말에 휴식·체험 위주의 가족여행을 떠나는 문화가 확산되고 있다.

\* UNESCO 생물권보전지역(5), 람사르습지(18), 국립공원(21), 생태경관보전지역(36) 등 세계적인 생태자원 보유

2008년 환경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공동으로 ‘생태관광 활성화 방안’을 수립·추진하면서 우수한 자연환경을 지역의 발전동력으로 현명하게 이용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노력이 본격 시작되었다.

### ●● 생태관광 자원 확보

보호지역을 꾸준히 지정하여 생태관광 자원을 확보하고 있다. 우수한 생태자원이 지역 발전의 동력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2008년 이후로 지역의 적극적인 참여와 요구에 의해 보호지역 지정을 추진하는 사례가 많아졌다. 특히 고창군의 경우, 자치단체와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의지로 2013년에 행정구역 전체를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등재하는 성과를 이룬 바 있다.



[ 24년 만에 신규지정 된 무등산 국립공원 ]



[ 고창군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의 운곡습지 ]



[ UNESCO 세계자연유산, 생물권보전지역인  
제주 한라산 국립공원 ]



[ 우리나라 최고(最古)의 원시 자연 늪으로  
람사르습지로 등록된 창녕 우포늪 ]

## ● ● 생태관광 기반시설 확충

국립생물자원관('07~), 국립생태원('13~) 등 국가차원의 전문기관이 설립되면서 연구·조사에 기반한 생태관광의 거점이 확보되었고, 국립공원 생태탐방연수원\*과 생태관광지 에코촌\*\*과 같은 체류형 생태관광을 위한 시설이 마련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자연 훼손을 최소화 하면서 가까이에서 자연을 체험하도록 하는 생태탐방로도 지속적으로 조성하고 있다.

\* (국립공원 생태탐방연수원) 국립공원에 체류하며 생태체험, 환경교육 등이 가능한 생태탐방체험시설

\*\* (생태관광지역 에코촌) 체류형 생태관광 지원을 위한 친환경 숙박시설로 순천만 에코촌(운영중), 우포늪 에코촌('14년말 완공예정)이 조성·운영 중



[ 북한산 생태탐방연수원 ]



[ 순천만 에코촌 유스호스텔 ]

### ●● 자연환경해설사 제도 도입

생태관광의 만족도를 좌우할 정도로 중요한 생태해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자연환경해설사\* 제도를 도입(12~)하였고, 환경부지정 양성기관\*\*에서 2013년까지 482명의 자연환경해설사가 배출되었다.

\* [자연환경해설사] 생태·경관보전지역, 습지보호지역 및 자연공원 등의 방문객에게 자연환경에 대한 해설·홍보·교육·생태탐방안내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자연환경보전법 제59조)

\*\* [양성기관 지정 현황] 2014.8월 현재 총 8개 기관 지정, 북한산생태탐방연수원, 서천조류생태전시관, 한국자연공원협회, (사)생태도시담당21,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사)제주생태교육연구소, 경상남도 환경교육원, 고양 생태교육센터



### ●● 생태관광지역 지정제 도입과 부처 간 협업

2010년부터 생태관광 모델사업과 시범사업을 시행하였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2013년에는 자연환경보전법을 개정하여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생태관광지역 지정 제도

를 처음 도입·시행하였다. 또한 환경부와 문화체육관광부 간의 생태관광 정책협의회를 활성화 하고, 문체부에 등록되었던 한국생태관광협회를 환경부로 이관하여 자연환경 보전법에 근거한 법정법인으로 등록하고 현장에서 생태관광 추진을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하였다.

### ● ● 생태관광 국제협력

생태관광이 저개발국의 빈곤퇴치와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한다는 인식 하에 유엔 국제관광 기구(UN WTO), 세계자연보전연맹 등의 국제적 노력도 확산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UNEP 지속가능한 관광 국제파트너십'에 가입('11)해 운영위원으로 활동 중이며, 세계생태 관광협회 총회 등 국제회의에 참석해 우리의 생태관광 사례를 세계에 알리고 있다.





## 생태관광의 성공 · 저해요인

그간의 생태관광 활성화 정책 추진에 힘입어 일부 지역에서는 관광객이 증가하고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는 생태관광의 성공적인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생태계가 훼손되는 등 생태관광 본연의 특성을 잃어 가는 부작용도 일부 발생되고 있다. 또한 우수한 생태자원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태관광지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지역도 있다.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전략과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기존의 사례에서 성공요인과 저해요인을 찾아보았다.

### ● ● 성공요인 모색

#### [ 순천 순천만 ]

순천만은 2002년부터 훼손 · 방치된 습지를 복원함으로써 흑두루미 · 재두루미 등 230여종의 철새, 120여종의 식물, 300여종 저서식물이 서식하는 생태관광 대표 명소로 변모했다. 순천 생태관광의 주요 성공요인은 시민단체의 건의를 수용해 생태를 복원하고 환경저해시설을 철거하며 순천만을 브랜드화한 순천시의 강력한 추진의지, 생태공원 · 에코촌 등 인프라 구축으로 분석된다.

#### [ 제주 선홍1리 ]

제주 선홍1리는 람사르 습지인 동백동산습지와 벵뒤골 등 독특한 자연환경을 보유한 마을로서 2011년부터 주민주도의 생태관광을 운영하고 있다. 제주만의 독특한 자연환경과 함께 10여 년 간 주민을 설득하고 마을사업으로 발전시킨 사무국장, 이장 등 지역리더의 존재가 큰 힘이 되었다. 또한 지역주민들이 자연자산에 대해 긍지를 갖고 있으며, (주)제주생태관광과 협력해 지속적인 컨설팅이 이루어지는 점도 성공요인으로 꼽힌다.

### [ 관매도 명품마을 ]

관매도 명품마을은 2010년 국립공원 구역조정 시 주민들의 건의로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구역 내에 남게 된 마을이다. 이후 국립공원 존치마을에 대한 환경개선과 소득증대 사업으로 ‘명품마을’ 조성을 추진하였는데 관매도가 그 첫 대상지로 선정되었다. 명품마을 조성 이후 2010년부터 3년 간 연간 탐방객과 소득이 10배 가까이 증가했다. 관매도의 경우 마을환경개선, 숙박시설 확충, 특산품 개발 등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체계적인 지원이 있었고, 2011년 인기 TV프로그램에 홍보가 된 것도 성공요인이 되었다.

## ● ● 저해요인 도출

### [ 창녕 우포늪 ]

창녕 우포늪은 국내 최대의 내륙습지(213만m<sup>2</sup>)이자 최고(最古)의 원시 자연늪으로 1,500여종의 동·식물이 서식하고 있는 생태계의 보고(寶庫)이다. 2008년 창원 람사르협약 당사국 총회를 계기로 탐방객이 급격히 증가('06년 20만 → '08년 150만)하였고 최근에도 매년 80만 명 이상이 방문하고 있다. 그러나 교통이 불편하고, 장시간 체류할 프로그램이나 숙박·식당이 부족하며, 지역 핵심리더가 부재하여 생태적 우수성에 비해 생태관광이 크게 활성화하지 못하고 있다.

### [ 울진 왕피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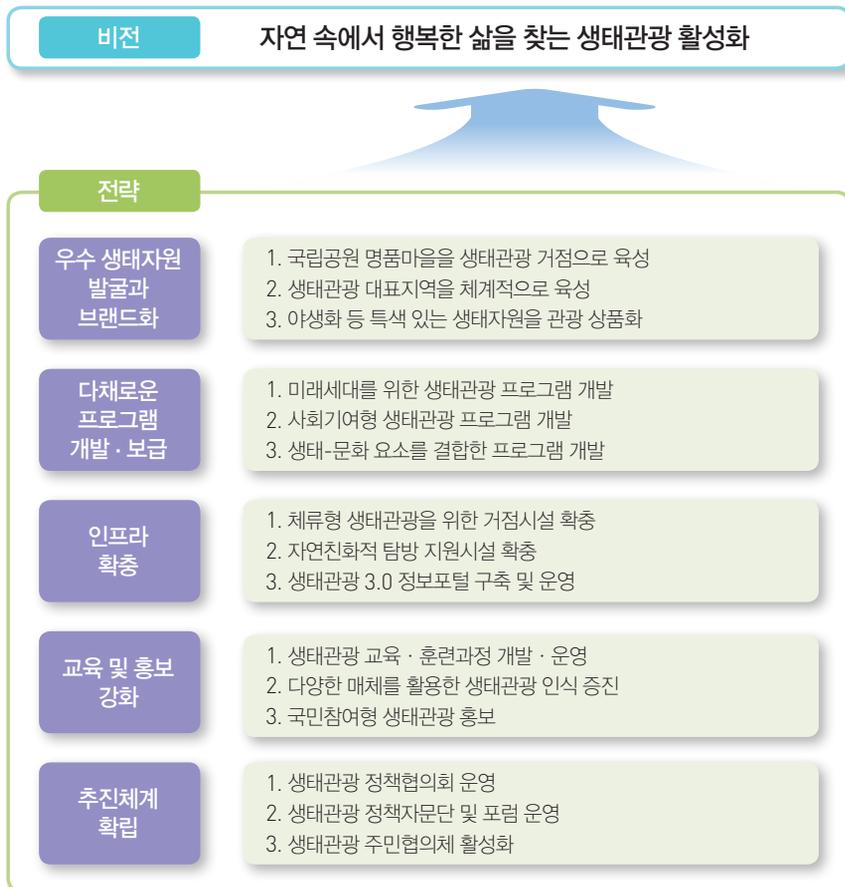
울진 왕피천 유역은 국내 최대 생태경관보전지역(전체 생태경관보전지역의 30%, 102km<sup>2</sup>)으로 우수한 식생과 빼어난 경관을 보유한 지역이다. 산양, 수달, 구렁이, 하늘다람쥐 등 멸종위기종 18종이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교통여건이 불편하고 적극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홍보할 수 있는 지자체 또는 지역리더를 중심으로 한 구심력이 부족해 생태관광 잠재력이 충분히 발현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 [ 명품마을 신선, 내도 ]

신선마을과 내도마을은 각각 덕유산과 한려해상국립공원에 있는 명품마을이다. 2011년에 명품마을로 조성된 이후 탐방객이 급증하고 지역의 소득도 증가하는 성과가 있었다. 그러나 신선마을의 경우 갑작스러운 경제여건 변화로 발생한 주민 간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협의체가 없었고 내도의 경우 주민 대부분이 70대 이상으로 지속적으로 생태관광을 이끌어갈 리더가 부족한 것이 주요 저해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 IV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5대 전략 15개 과제

생태관광을 성공시키는 요인을 확산시키고 저해요인을 해소해 나가기 위해, 우수 생태 자원의 발굴 등 5개 전략을 정리하고 전략별 세부과제 총 15개를 발굴·수립하였다.



## ● ● 우수 생태자원의 발굴 및 브랜드화

생태관광의 지속적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수한 생태자원을 발굴하고 관리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 된다. 이를 위해 지역과 주민이 주축이 되어 생태자원의 발굴과 관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 [ 명품마을과 생태관광지역 ]

국립공원의 경우 2017년까지 명품마을 18개소를 조성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주민을 도와 홈페이지 관리, 프로그램 운영을 할 코디네이터를 배치하고, 마을별 특성을 살린 볼거리, 놀거리, 먹거리, 살거리를 개발함으로써 주요생태관광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국립공원 이외에 생태관광의 잠재력이 우수한 곳은 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하여 우리나라 생태관광의 대표 브랜드로 육성하고자 한다.

#### 생태관광지역 지정제

환경적으로 보전가치가 있고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을 체험·교육할 수 있는 지역을 환경부장관이 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하여 3년 간 지립형 생태관광 기반 마련을 위한 예산지원, 전문가 컨설팅, 생태관광 인프라, 홍보 등을 중점 지원한다. 2013년 12개 지역이 선정되었고 2017년까지 20~30개소 내외로 확대 지정해 나갈 계획이다.

### [ 야생화 등 지역별 생태자원의 관광자원화 ]

우리나라에만 있는 고유 야생화와 같이 지역별로 특색 있는 생태자원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국립생태원에서는 4계절 야생화단지조성, 특별 전시회 개최 등 야생화 생태관광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며, 국립공원에서는 야생화 자생군락지를 보전하면서 고품격 생태관광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도록 관찰로 조성, 가이드탐방제 실시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지자체 별 야생화 명소 조성, 상징꽃 지정도 추진 중이다.



## ● ● 다채로운 프로그램 개발 · 보급

생태관광객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양질의 프로그램 확보가 중요하다. 특히 생태관광의 주 고객층인 가족단위 여행객, 체험학습 · 수학여행단에 적합한 프로그램과 자원봉사 결합형 프로그램을 중점 개발하고 있다.

국립공원에서는 청소년 사회성 증진 프로그램, 가족형 · 야영형 프로그램('아빠와 함께하는 생태관광' 등), 자원봉사형 생태관광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국립생태원은 서천군, 코레일과 함께 서천군 생태관광 열차를 운영하여 국립생태원 방문자들이 금강하구, 갈대숲, 한산모시박물관 등을 고루 체험할 수 있는 '체류형 생태관광 루트'를 개발하고 있다.

## ● ● 탐방객의 편의제공을 위한 인프라 확충

국립공원, 습지보호지역 등 자연이 아름다운 곳에서 머물고자 하는 국민의 욕구는 높아지지만 이를 수용할 수 있는 기반시설은 부족한 실정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현재 북한산국립공원에서 운영 중인 생태탐방연수원을 지리산, 소백산, 설악산 등 주요 국립공원에 확대 · 건립할 계획이며, 우포늪 · 순천만 등 생태관광지 인근에 에코촌(Eco-Village)과 같은 친환경 숙박시설 설치도 확대해 나갈 것이다.

또한 생태관광에 참여하고자 하는 탐방객이 필요한 정보와 예약을 한 자리에서 할 수 있도록 2016년까지 '생태관광 3.0 정보포털'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현재 다양한 공급자별로 제공되고 있는 생태관광지, 시설, 프로그램 등 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하고, 여행후기 공유, '나만의 여행지도', 월별 생태관광지 추천 등 맞춤형 서비스가 가능하게 될 것이다.



### ● ● 인적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강화

생태관광지역 주민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지역협의체의 운영, 스토리텔링, 생태관광 프로그램 개발·홍보 등 교육과정을 개발해 운영하고자 한다.

\* (생태관광 스토리텔링 워크숍) 한국생태관광협회 주관으로 연 3회('14.4, 7, 10월 중) 북한산생태탐방연수원에서 진행되며, 현장조사, 컨텐츠 제작, 스토리텔링 실습 등으로 구성

이와 함께 현재 생태관광에 참여했던 감동과 느낌을 확산시켜 나가기 위해 환경부 장관상과 총 2,0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되는 생태관광 체험수기 및 사진 공모전이 진행 중('14.8~10)이며, 관심 있는 대학생이 생태관광을 체험하며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생태관광 영리더스 클럽'('14~)을 운영중이다. 그 외에도 페이스북, 트위터 등 SNS에서도 수시로 이벤트가 이루어고 있다.

앞으로 생태관광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서적, TV방송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생태관광을 홍보할 계획이다.

## ●● 지역 주도 생태관광 추진체계 확립

생태관광이 정부지원에만 의존하는 단발성 사업에서 나아가 지속적으로 지역 발전의 동력으로 작용하도록 하기 위해 생태관광지역 주민협의체의 구성·운영을 지원하고, 전문가 자문단\*을 통해 생태·문화 특성을 고려한 생태관광 컨설팅과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 현장경험이 있는 생태·관광·창업 전문가·국립공원·국립생태원 등 전문기관이 참여

### [ 정부 부처 간 협업 ]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뿐만 아니라 교육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등 다양한 부처와 이해관계자 간에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2013년 환경부와 문화체육관광부 간에 성공적으로 운영된 생태관광 정책협의회를 확대하여 관계부처 간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 생태관광 성공모델 육성 계획

환경부는 생태관광 활성화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생태관광 성공모델을 집중 육성하고자 한다. 성공모델 대상지를 중점지원하여 대표적인 생태관광 사례를 조기에 확립하고 여타 생태관광지에 성공 경험을 확산할 수 있을 것이다.

성공모델 육성 대상지는 13개 국립공원 명품마을과 12개 생태관광지역, 그 외에 생태관광 잠재력이 우수한 지역 중 전문가 자문을 통해 영산도, 제주 선홍1리, 인제 생태마을, 고창 용계마을 등 4개 지역을 선정하였다. 이들 지역에 대한 중점지원으로 인적역량과 환경·사회적 수용력을 향상시켜 2017년까지 2013년 대비 관광객과 소득을 모두 2-3배 증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 ● 성공모델 지역별 특징

영산도는 국립공원 구역조정 시 주민 요청에 따라 공원 내에 남게 된 마을로 무인도화 되고 있었으나 2012년 명품마을로 지정되면서 마을이 살아나고 있다. 층암절벽, 코끼리 바위 등 영산8경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자랑한다.

제주 선홍1리는 사회적기업과 지역주민의 협력기반이 우수한 것이 특징으로 동백동산 습지와 벵뒤굴, 4.3항쟁 유적 등 독특한 생태·문화 자원을 볼 수 있다.

인제 생태마을은 주민이 참여하는 (사)하늘내린인제 에코투어사업단을 중심으로 마을별 테마 체험을 운영하고 있다. 국내 최초의 람사르 습지인 대암산 용늪, DMZ 등 생태가 잘 보존되어 있다.

고창 용계마을은 지자체는 물론 지역 주민의 자연보전 의지가 매우 강해 2013년 국내 최초로 군(郡) 전체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등재되었으며 탐사르습지인 운곡습지, 고인돌 공원 등 세계적 생태·문화 유산을 체험할 수 있다.



[영산도 명품마을]



[제주 선흘 1리]



[인제 생태마을]



[고창 용계마을]

### ●● 공통 지원

환경부는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성공모델 지역을 알리고 가족 여행, 체험학습으로 널리 이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스토리텔링, 자연환경해설 등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전문가 멘토링을 통해 지역특성에 맞는 생태관광 산업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

### ●● 맞춤 지원

이와 함께 마을별로 꼭 필요한 지원이 이루어지게 된다. 국립공원 명품마을 영산도는 영산도 전체를 돌아볼 수 있는 탐방로 조성, 제주 선흘1리는 생태관광 숙소 조성, 인제 생태마을은 용늪 가이드탐방을 위한 지원을 할 계획이다. 고창 용계마을은 2014년 생태관광 지역 지정을 추진하면서 지역주민의 역량교육, 탐방로·화장실 등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지원도 병행할 예정이다.

## VI 생태관광의 기대효과

### ● ● 자연보전에 관한 인식제고와 삶의 질 향상

생태관광이 여가문화로 자리 잡게 되면 국민들이 자연과 가까이 어울리면서 우리 자연환경의 소중함을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으며, 삭막한 도심과 바쁜 삶에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또한 몰라서 알아보지 못했던 우리 주변의 야생화와 같은 우리 고유 자원을 향유하면서 삶이 풍요로워지고, 국토의 보전과 생물다양성 증진에도 기여하는 선순환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 ● ● 일자리 창출 등 지역 공동체 활성화

생태관광이 활성화 되면 주민 생태관광 가이드 등 주민의 참여와 활동이 늘어나고 주민이 운영하는 식당과 숙소의 이용이 많아지며, 각종 체험활동과 특산물 판매 등으로 지역소득 증대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생태관광 기반 마련을 위한 각종 지원으로 낙후된 생활환경이 개선되는 효과도 있다.

이러한 결과로 일자리를 찾아 고향을 떠났던 젊은이들이 다시 마을을 찾고, 마을공동체가 활성화되면서 진정한 지역 균형 발전의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영산도 벽화 채색 (전)



영산도 벽화 채색 (후)

[ 참고 : 국립공원 명품마을 및 생태관광지역 지정 현황 ]

■ 국립공원 명품마을 조성

- '10년 국립공원 구역조정 시, 20가구 이상 마을을 공원구역에서 제척(조정 전 676 → 조정 후 129 마을)하였으나, 관매도 주민(90명)은 국립공원에 남기를 희망하며 존치를 건의('10.1)
- 이를 계기로 국립공원에 존치하는 마을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면서, 생태관광으로 소득증진을 기하는 명품마을 조성사업 추진('10~)

[ 국립공원 명품마을 현황 ]

지정년도	마을명	위치	관할 사무소	주요 자원
2010	관매도  관매도 관고 싶은 재래의 집	전남 진도	다도해서부	후박나무(천연기념물), 관매8경(해수욕장 등), 무형문화재(상여매기 등)
2011	내도  내도 자연이 품는 곳	경남 거제	한려 동부	후박나무(천연기념물), 동백나무 군락지, 패총(선사시대 유적)
	신선  신선 명품마을 덕유산	전북 무주	덕유산	정원대보름 달집태우기, 구천동계곡, 벚꽃길(문체부 지정 아름다운길)
	상서  충청남도 상서돌담마을 CHEONGSANGDO SANGSEOVILLAGE	전남 완도	다도해해상	옛담장길(지방등록문화재 제279호), 긴꼬리투구새우 (멸종위기야생동물2급), 다랭이논, 구들장논 등
	골외골  골외골 골짜기를 따라 걷는 이야기 마을	충북 제천	월악산	동산천, 덕주봉(893m), 산양(천연기념물제217호) 망개나무자생지 (천연기념물제94호)

지정년도	마을명	위치	관할 사무소	주요 자원
2012	함목 	경남 거제	한려 동부	함목해수욕장, 동백숲, 구망해변, 팔색조(천연기념물 제233호)번식지
	평촌 	전남 고흥	다도해 해상	팔영산, 능가사, 편백림 등
	영산도 	전남 신안	다도해 서부	층암절벽, 비류폭포, 코끼리바위 등 영산 8경
	죽령 	충북 단양	소백산 북부	소백산국립공원, 죽령옛길, 죽령산신당
2013	평촌 	광주	무등산	충효마을 당산제, 장승과숫대
2014	동고지 	전남 여수	다도해 해상	2014년 신규 지정
	도원 	전남 화순	무등산 동부	
	달밭골 	경북 영주	소백산	

### ■ 생태관광 지역 지정·육성

- 생태관광 육성을 위해 환경적으로 보전가치가 있고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을 체험·교육할 수 있는 지역을 '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하여 지원(자연환경보전법 제41조, '13.9.23 시행)
  - 환경부장관이 문체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고 관할 지자체에 관리·운영 비용 지원, 필요한 계획의 수립·시행
- '13년 12월 첫 지정 시 54개 추천 후보지 중 12개 지역 선정

#### [ 12개 생태관광 지역('14.7월 현재) ]

	지역명	개요
1	 <p>[부산-낙동강하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간 17만 마리의 철새가 도래하는 철새도래 지역으로 큰고니, 저어새, 흑기러기 등 16종 6천여마리의 천연기념물과 연간 170여종 철새들이 찾고, 372여 종의 염생식물이 서식하는 도심내 동·식물의 생태계 보고(천연기념물 제179호 낙동강 하류철새도래지)</li> <li>• 낙동강하구 탐조코스, 하구답사, 수서곤충 관찰, 갈대체험, 야생동물진료체험교실 등 24개 프로그램 운영</li> </ul>
2	 <p>[울산-태화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태하천으로 복원된 태화강, 야생생물보호구역(백로, 붉은부리 갈매기, 왜가리 등 서식), 태화강 하류의 생태·경관보전지역, 삼호대숲, 십리대밭 등</li> <li>• 태화강 전망대, 태화강 방문자센터 여울(마을기업) 운영. 울산 생태환경투어, 봄꽃대향연, 여름철 백로생태학교, 가을 연어 회귀 관찰, 겨울철 철새탐방학교 및 태화강 생태문화 한마당 등 교육·체험 프로그램 운영</li> </ul>
3	 <p>[인제-용늪 생태마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DMZ, 백두대간보호지역, 습지보호지역(람사르습지), 천연보호 구역 등 군면적의 33%가 보호지역이며, 멸종위기야생동식물 74종, 한국고유종281종, 천연기념물 21종이 서식하고 있음 (비로용담, 장백제비꽃, 대택사초, 대암산집가게거미, 한국좁쌀 잠자리는 국내유일 자생)</li> <li>• 마을별 체험 프로그램 운영(이야기숲길걷기, 우리꽃체험, 오지 트레킹, 대암산 용늪 생태체험 등)</li> </ul>

	지역명	개요
4	 <p>[양구-DMZ]</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쟁의 상흔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지역으로 전구간이 보호구역, 평화누리길, 두타연안보관광지, DMZ야생동물생태관, 편치볼둘레길, 산양증식장, 생태식물원 등</li> <li>• DMZ 생태탐방 투어, 안보체험 등</li> </ul>
5	 <p>[평창-어름치마을(백룡동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 지역으로 천연기념물 제259호인 어름치 서식, 천연기념물 제260호인 백룡동굴이 있음</li> <li>• 숲해설가, 문화해설사와 함께하는 칠족령트래킹, 백운산 등반, 자연과 숲에 대한 이해, 지역에 대한 이해 프로그램 운영 및 평창 아라리보존회를 연계한 전통문화 체험 프로그램, 어류생태를 주제로 한 영재과학 에듀투어 등 교육프로그램 운영</li> </ul>
6	 <p>[서산-천수만 철새도래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야생생물 보호구역으로 멸종위기 조류 49종, 천연기념물 조류 37종, 멸종위기 야생동물인 살과 금개구리 서식</li> <li>• 서산 버드랜드를 기점으로 천수만 철새탐조투어(10~3월), 갯벌체험교실(4~5월), 곤충체험교실, 철새기행 행사 운영</li> </ul>
7	 <p>[서천-금강하구 및 유부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부도와 금강하구갯벌은 람사르습지, 습지보호지역이며, 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경로 파트너십(EAAFP)서식지로 등재</li> <li>• 도요새와 20일간의 서천 습지여행, 서천습지 청소년 학습여행, 사계절 서천철새여행, 서천 생태체험여행(금강 신성리갈대밭, 국립생태원), 서천 농촌체험관광(수학여행) 운영</li> </ul>
8	 <p>[순천-순천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 연안습지 최초의 람사르습지, 습지보호지역, 명승 제41호, 생태계보존지구인 순천만 일대</li> <li>• 순천만 생태교실, 해설사 프로그램(천문관측, 공작체험, 갈대열차, 탐조체험) 등 운영</li> </ul>

	지역명	개요
9	 <p>[울진-왕피천계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녹지자연도 8등급 이상이 대부분인 우수한 식생과 빼어난 자연 경관을 보유하고 있으며, 산양, 수달, 구렁이, 삿, 담비, 하늘다람쥐 등 멸종위기종 18종이 서식하는 국내 최대규모의 생태경관보전지역인 왕피천 계곡과 불영사 계곡 문화재 보호구역</li> <li>• 왕피천 생태경관 트래킹, 유기농 생태환경체험 프로그램, 굴구지 마을 피라미축제, 산약초 교실 운영</li> </ul>
10	 <p>[남해-앵강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립공원, 군립공원 지역(금산, 호구산), 생태우수마을(두모마을, 가천마을), 국가명승(다랭이논) 외 두드레 마을, 해우라지마을, 미국마을 등 특색있는 마을과 생태탐방로 '바릿길', 앵강다숲</li> <li>• 마을별, 생태환경별 체험프로그램 30여건 보유</li> </ul>
11	 <p>[창녕-우포늪]</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포늪은 람사르습지, 습지보호지역, 천연보호구역이며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잠정목록에 등재. 가시연꽃, 마름 등 500여종 식물과 천연기념물인 노랑부리저어새와 큰고니 등 160여종 조류와 다양한 어류, 포유류, 파충류, 곤충이 서식하고 있고, 따오기 복원사업 진행 중</li> <li>• 우포생태교육원의 우포체험학습(초등생), 우포자연학습원의 수생식물관찰, 철새관찰 등 프로그램, 가시연꽃마을의 각종 체험, 우포늪 반딧불이 탐사 및 달빛기행, 람사르시범마을 생태 체험프로그램 운영</li> </ul>
12	 <p>[제주-동백동산습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습지보호지역, 람사르습지, 산림유전자원지역 등으로 지정된 선흘1리 동백동산습지</li> <li>• 국립습지센터와 (주)제주생태관광이 연계하여 지역주민과 함께 프로그램 연 3회 30명 한정 운영, 상설 동백동산(습지) 생태탐방 프로그램 운영("뽕하고 해들 곳", 토요 어린이 동백동산 체험)</li> </ul>

환경정책

*Briefs*



